현불논단

이젠 중생제도 합시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출가 당시 절집 문화는 오직 '깨달음'
최근엔 '포교' 부상…사회 부응 증거
상월결사 인도순례 조계사 회향식서
회주 자승 스님 "중생제도" 말씀 공감

우린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교해야 하나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좋은 롤모델
부처님 '遊行' 강조…'길 위의 삶' 의미
이 같은 자세로 포교해야 장밋빛 미래

필자가 출가할 때만해도 어른스님들에게 '승려는 선방에서 엉덩이 붙이고, 정진해야 한다' 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당시 절집 문화는 오롯이 '깨달음' 이었다. 근자는 '포교' 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는다. 불교가 그만큼 사회와 대중문화에 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자를 자랑했던 불교가 기독교에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근자는 신도들의 고령화, 출가자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께서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번 생은 중생 제도하십시다"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법을 전하다! 진리를 전하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교해야 하는가? 이점에 모델을 제시해준 분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부루나 존자이다. 부루나 존자는 카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바라문가 아들이다. 부루나의 부친은 카필라성 정반왕의 국사였고, 그는 베다에 정통했으며, 당시 학문에 박식한 인물이었다. 이런 명문가 출신 자제여서일까? 부루나는 조금 거만함이 있었다. 부처님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면이 보였다. 부처님의 진심어린 충고에 부루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부처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줘 금방 이해시켜줬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변재 능력에 '설법제일' 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는 인도의 서부지역 수나아로 가서 전법할 것을 맹세하고, 부처님께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부처님께서 염려하는 눈빛으로 부루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 사람들은 사납고 흉악해서 욕하고 꾸짖는 일을 예사로 한다더구나.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이 설령 저에게 욕할지라도 그들에게 착한 심성이 있어 손으로 때리거나 돌로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칼로 너를 해치면 어쩌려고 하느냐?"

"부처님, 그 나라 사람들이 제 생명을 해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해 해탈코자 하는데, 육신이 병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행자도 있습니다. 그 서부 사람들 덕분에 내 썩어빠진 육신이 죽게 되면 (나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 존자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부루나야! 그대는 수행을 잘 해서 참고 견디는 인욕을 체득했구나.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곳의 거친 중생들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부루나는 부처님께 하직하고, 서부 수나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제도했다. 이 내용은 잡아함부 〈부루나경〉에 나타난 이야기다.

중국 고대~근대까지 속강승(俗講僧)이라는 승려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 평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경전 내용을 설화처럼 꾸며서 맛깔나게 이야기해주는 스님들이다. 중국도 고대로부터 문맹인이 많아 경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속강승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불법을 전했다. 우리나라도 '땅설법' 이라고 해서 이를 실행하는 스님이 있다고 들었다.

부처님께서 당신도 그러했지만, 제자들에게 '유행(遊行)을 떠나라' 고 하셨다. 유행이란 길에서 중생들에게 음식물을 공양 받고, 법을 설해주며,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는 삶이다. 부처님과 옛 선지식들은 '길 위, 맨발의 삶' 이었다. 이런 자세로 포교한다면, 한국불교도 멀지 않아 장밋빛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부대중, 조금만 분발하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해상강국 상징 '법화사'

지난해 7월 22일 한 · 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왕루신(王鲁新) 주제주중국총영사는 제주와 중국 간에 천년고찰의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다시 잇는다' 라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상무역을 통해 한중일과 동아시아를 연결했던 장보고처럼 한 · 중 관계 진전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물적 · 인적 · 문화 · 역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 도지사를 비롯해 중국 법화원 스옌쉐 스님, 법화사 도성 스님, 관음사 정안 스님 등이 함께 참석했다.

법화사는 제주 산남을 대표하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에 의해서 창건된 절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사찰의 앞 해안에는 당시 동아시아 해양의 중심지였던 대포포구가 있다. 이 대포포구를 통한 삼국 교류의 중심 역할을 법화사가 담당했을 것이라고 본다. 장보고는 해상 근거지로 지금의 완도 일대인 청해진(828~851)을 중심으로 한 · 중 · 일 교류의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였는데, 이 무렵 중국 산둥성 적산촌에 신라방(新羅坊)과 탐라에 법화원을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법화사 관계자 스님들과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제주에 불교가 전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탐라 법화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현존 기록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명문기와이다.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 원나라 세조 지원 6년(1269)에 중창을 시작해 지원 16년(1279)에 마쳤다.

이 발굴 현장에서는 청자와 청동등잔, 백자, 분청사기 등과 함께 개원통보(開元通寶)도 발굴되었다. 이 화폐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청동화로, 당나라의 창업을 기념해 무덕(武德) 4년(621) 처음으로 주조 발행되었다. 이 동전은 그 후 역대 왕조의 표준형이 돼 무종 5년(845) 회창에서 주조한 예가 있으며, 오대 삼국시대의 남당(937~975)에서도 발행했다. 고려에서는 목종 때(998~1009) 같은 이름의 주화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탐라의 법화사는 그 창건이 원지배기 이전인 것은 확실하다.

이후 법화사는 탐라국이 고려의 현으로 편입되고 조선의 직접 지배에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태종실록〉(1406년)에서 명은 사신을 파견해 탐라의 법화사에 욕심을 드러낸다. 명의 성조 영락제는 칙서에서 "짐이 선황과 황비의 은덕을 거듭 생각하여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제전을 봉행하고자 하여 특별히 사례감태감 황엄 등을 보내어 그대 나라 탐라에 가서 동불상 몇 좌를 구하게 하니 잘 도와 성사시켜 짐의 뜻에 부응토록 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와 함께 '탐라 법화사에 있는 미타삼존은 원의 양공(良工)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곧바로 가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그 의도가 명이 탐라를 살피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간파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전남 해남을 통해 나주까지 동삼존불을 옮겨 인계했다. 그때부터 삼존불이 떠나간 곳이라고 해서 강정포구 서쪽을 '세불포구' 라고 불렀다.

또 〈태종실록〉을 보면, 조선의 조정은 법화사의 노비 280구를 30구만 남기도록 하였다. 억불정책으로 법화사는 중반 이후 비보사찰의 지위마저 빼앗기고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 18세기에 이르러 폐사됐다. 역사의 풍랑을 헤쳐 온 법화사가 다시 복원된 지 100년,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출범에 부쳐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명상센터 건립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4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불교계 안팎의 내외 귀빈과 사부대중 1500명이 참석해 종단 핵심 불사의 성공을 축원했다.

"비원(悲願)을 안고 넘어진 채 엎드린 부처님을 바로 모심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 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불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천년을 세우다' 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 을 세워서 '미래 천년' 을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이고, '미래 천년' 은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됨에 따라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월 28일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는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 법회' 가 봉행된다. 이 같은 원력 결집과 실무적 연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마애불의 입불을 시행한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종단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미래 천년을 위한 선명상센터 건립, 미래세대 포교 불사 등이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안정화된 태고종을 중흥시킬 새 수장을 뽑는다' 는 기대 속에서 시종일관 열기가 가득한 채 진행됐다.

투표에서 62%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상진 스님은 "공심으로 일하겠다"며 "위로는 어른과 선배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래로는 후배 스님들과 종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거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종단을 운영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진 스님은 공식 출마를 준비할 때부터 임기 내 펼칠 주요 종책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 종도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책 실현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보여주기식의 선거용 종책이 아니라 실용적 종책을 강조하며 종단의 변화를 염원했다.

△문화사업단 설치 운영을 통한 태고종 문화유산 확산 △종무행정 관리시스템 대폭 이양으로 지방교구 종무원 활성화 △동방불교대학의 사이버 대학 전환, 신도교리 통일화 △승려전문 노인병원 · 요양원 설립과 태고종 장례의식 시스템화 △종단 운영의 재정 자립화 △지방초심원 부활을 통한 징계절차 3심화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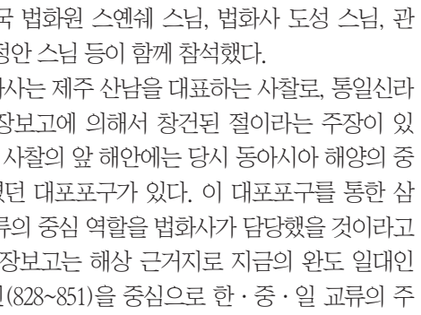
특히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조태천' 으로 서열2위였던 태고종은 수년간 이어진 내부 갈등으로 위상을 잃고 현재 '조천진관태로 다섯 번째다.

태고종이 품고 있는 잠재력이 새로운 총무원장과 발현된다면 의전 서열 5위에서 2위를 올라설 수 있는 건 시간문제다.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적임자가 총무원장으로 뽑힌 만큼 곧 시작될 태고종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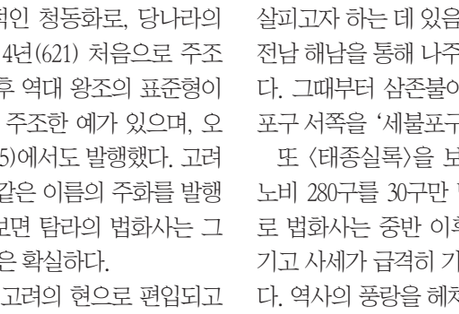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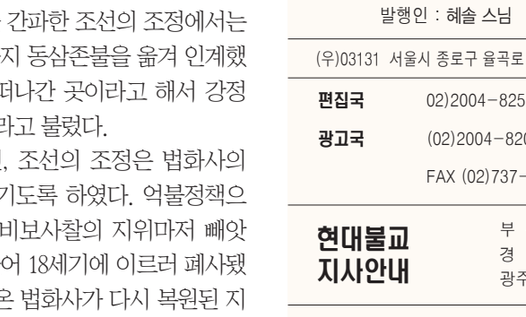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